현대패션에 나타난 탈구성현상 고찰

A Study on Discomposition Expressed in the Contemporary Fashion

조말희(Cho Mal Hee)
동서울대학 의상디자인 전임강사

이 논문은 1999년도 동서울대학 부설산업기술연구소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 되었음.

研究論文 Original Articles ○ Received : Mar. 13. 2000 ; Accepted : Apr. 6. 2000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이론적 배경

2-1 탈구성의 개념 및 발생

2-2 탈구성의 특성

3. 현대패션에 나타난 탈구성현상

3-1 조형요소의 실증적 분석

3-2 디자이너의 작품 분석

4. 탈구성 디자인의 미적특성

4-1 변형과 왜곡

4-2 부조화의 조화

4-3 양면가치의 공존

5.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要約)

탈구성현상은 허구, 추상, 부재, 변형의 의미를 부각시키며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없애고 새로운 미의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 이후 현대 패션에서 다양하게 전개되는데 마틴 마지엘라나 앤 드뮬리미스터, 레이 카와쿠보 등의 작품에서 잘 찾아 볼 수 있다. 이들의 작품은 변형과 왜곡, 부조화의 조화, 그리고 양면가치가 공존하는 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미의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며 주관적인 미의식의 근거를 마련한다.

(Abstract)

Jacques Derrida took off the self-contradiction of structuralism and built up a theory so called "Deconstruct". By issuing a series of papers wich strongly criticized the existing western philosophy, he drew into 'strangers' alienated and deconstructed the methodology of structuralism by getting out of the antagonistic thought attaching great importance to Logos. Discomposition is realized by exposing the ex-structural elements existed inside of structuralism, and is an open philosophy recognizing the dignity and freedom of an individual than the general structure in the methodology of structuralism. Discomposition is a theory for criticizing the conservative thought frame traditional western philosophy, and deconstruct as a method of criticism persists a new epistemology by questioning to all texts including a text of tradition and deconstructing these texts.

The contemporary fashion in 1990's shows the discompositive appearances with the different form. textile print and color. By the analysis according to the deconstruct process, the characters of discompositive fashion are undecidability, decentring, disorder, and dislocation. Many designers like Martin Margiella, Alexander Mcqueen, and Ann Demeulemeester express these characters on their fashion.

The result of this process, the characters of discompositive design can be classified metamorphosis, harmony of the disharmony and coexistence of the ambivalence.

(Keyword)

Discomposition, Contemporary fashion, Deconstruct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1990년 이후 현대패션은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것은 인위적이고 비감성적인 것보다 더 강한 정신적 욕구의 분출인 탈구성현상을 근거로 한 것으로 신선한 충격을 준다. 탈구성현상은 1966년 쟈크 데리다(Jacques Derrida)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또 다른 자아 인식을 형성한다는 이론이다. 즉,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없애고 허구, 추상, 부재, 변형의 의미를 부각시켜 새로운 미의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대패션에 나타나는 다양한 디자인을 탈구성현상이라는 시대 문화적 흐름을 근거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문화의 흐름이 패션의 각 조형요소와 디자이너의 작품에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미적인 특성을 정리해 본다. 그럼으로써 탈구성은 개념적으로 분석하여 그 내적인 미를 고찰하고 현대 패션에 나타난 탈구성 현상을 이론적으로 파악한 다음 이를 토대로 독창적이며 긍정적인 탈구성의 복식미를 성립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첫째, 이론적 배경으로 탈구성의 본질과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현대패션의 각 조형요소와 디자이너의 작품에 탈구성현상이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분석한 다음 셋째, 이를 토대로 탈구성 디자인의 미적인 특성을 고찰한다.

연구방법은 탈구성의 이론적 배경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철학, 미학관련 서적 및 학술논문 등을 참고하였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 현대 패션에 탈구성 현상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문헌자료와 각종 패션잡지의 사진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사용된 자료는 1990년대 국외 패션 잡지 Fashion News, Collections, Fashion Line, Mode et Mode, Fashion Leader 등이다.

2. 이론적 배경

2-1 탈구성의 개념

탈구성은 기존의 질서를 무시하고 통일성, 전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의도적인 형태를 거부하며 전통적인 디자인의 역을 취하는 개념이다. 즉, 실제-허구, 구상-추상, 존재-부재, 본질-변형에서 우위의 개념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를 파괴하고 거기에서 떨어져 나옴으로써 허구, 추상, 부재, 변형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없애고 내적, 외적인 의미를 변형하여 새로운 미의식을 추구한다. 처음 보기에는 외형상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각각의 구성요소 안에서 일정한 방식으로 구체적인 형을 완성하게 된다.

탈구성에서 탈의 개념은 여러 겹으로 중첩된 허울들을 벗어 던지고 본래의 의미에 충실하게 개념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으로 단순한 변형을 넘어서 무의식적인 질서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현상은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의 결정불가능은 이중적인 가치를 인정하게 된다. 즉, 선과 악, 약과 독, 안과 바깥과 같은 이중성은 동시에 각각 자기 것을 갖고 다른 것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지우면서 자기가 타자의 흔적으로 여기는 그런 이중성이다.[1] '탈'은 그 어원으로 보면 비(非), 반(反), 불(不)과 같은 부정적인 뜻을 내포하는데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근본을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확대해서 재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어떠한 현상의 상반되는 두가지 의미의 양면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거의 모든 사회적인 대상에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탈구성의 개념은 2차대전 이후 유럽에서 사회구조의 모순, 인간 능력의 한계, 기존 철학의 비합리성을 지적하는 구조주의가 대두되면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구조주의는 지나치게 전체적인 구조만을 중시해서 개체를 전체에 종속시키고 구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므로 개체에 대해 특권을 부여 받는 존재가 되서 이분법적 사고가 되는 한계점을 드러내게 되었다.[2] 이러한 구조주의는 그 모순으로 인해 탈구조주의 현상으로 변해가는데 탈구조주의는 전체보다는 자아나 개체를 중시하고 어떠한 절대적인 논리도 부정하는 것으로 각각의 개념을 해체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탈구성은 해체주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과정으로 형이상학적 사고나 구조주의의 폐쇄적인 체계에 도전하여 새로운 개념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2 탈구성의 특성

해체주의에서 발생되는 탈구성현상은 본래의 의미인 텍스트를 개념적으로 분석하고 분해하여 그 구조적인 범주안에서 새로운 인식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보다는 개체를 중심으로 체계나 질서가 바뀌고 미의 개체도 주관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인 위치로 전환하게 된다. 그러므로 탈구성은 다양한 미의 분석을 가능하게하며 상호텍스트, 결정불가능, 탈중심과 같은 특성을 갖게 된다.

1) 상호텍스트

텍스트란 시간과 공간의 복합체 속에 존재하는 하나 하나의 도구로 이러한 텍스트는 서로 교차하고 얽혀지면서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텍스트는 독립하여 존재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그 영역을 넓혀 나가며 열린 사고를 지향한다.

해체철학에서 나타나는 탈구성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책 (le livre)과 텍스트(le texte)의 구분을 철저히 시도할 필요가 있다. 책은 의미가 일정한 체계적 줄거리를 중심으로 지니면서 하나의 상자 속에 질서정연하게 담겨 있는 과일들처럼 그렇게 촘촘히 박혀 있는 의미들의 전체성에 해당한다. 그래서 책은 곧 의미의 진열대요, 의미가 현존하는 보석상자요, 의미를 가두어 두는 전체성의 뒤주와 같다.[3] 그러나 텍스트는 책과 전혀 다르다. 텍스트는

1) 김형효: 데리다의 해체철학, 민음사, 237, (1996)
2) 이지윤: 해체주의 공간의 구성원리 및 디자인 특성과 조형적 접근 방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18, (1994)

단순히 글자가 인쇄된 좁은 의미의 교재가 아니다. 시간과 공간의 복합체 속에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텍스트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쉽게 말해서 인생이나 자연, 사회나 우주 그리고 역사도 텍스트요 문자인 셈이고 그런 텍스트보다 앞선 단계란 있을 수 없다.[4] 책은 단순히 그 자체로 진가가 발휘될 수 있지만 텍스트는 서로 상대의 텍스트성을 갖게 되고 결국 탈구성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게 된다. 텍스트에서 한계란 무의미하고 영원하거나 고정불변한 현존적 의미가 없다. 즉, 상호텍스트성이란 한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맺고 있는 상호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며 텍스트 중 어느 것도 완전히 현존 불가능하며 상호언급, 병행인용, 자율적 병행 불가능을 의미한다.[5]

2) 결정불가능

체계나 개체가 탈구성되면서 각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개념이 혼란해지고 다원화되는 결정불가능의 특성이 나타난다. 결정불가능은 체계가 무한히 확장되면서 의미가 흩어져 나가는 산종(散種)의 개념을 통하여 어떠한 고정관념도 성립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산종에서는 명백한 개념규정과 정의를 내릴 수 없고 또 그런 구획짓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산종의 철학에서 볼 때 어떠한 것도 어느 하나의 의미로 고정되어질 수 없다. 즉, 일정한 규칙이나 틀이 없는 무질서 속에서 우리의 편협한 내부세계를 탈구성을 통하여 해체시키며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확장된 공간 안에서 형성된 개념은 무질서하게 뒤섞인 가운데 서로 용해되고 융합(fusion) 되면서 그 의미를 애매모호하게 한다. 모든 것에 경계가 없어지고 본래의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는 이원론적 대립들 즉, 물질과 정신, 사실과 허구, 진리와 오류, 현존과 부재, 지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 등에서 어느 한 쪽도 제거할 수 없으며 도출되는 결론은 서로 중첩되어진 결정불가능의 가치를 지닌다.

3) 탈중심

탈중심은 'dis, de'의 개념으로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거나 멀어져서 전체의 균형을 이루게 되며 더욱 완전해지는 것으로 각각의 개체를 개념적으로 분해하고 재구성함으로써 다양한 형식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심은 그 위치 개념이 모호해지고 흔적(trace)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 탈중심은 개념의 탈구성, 자의식을 통한 허구성에 대한 비판, 전체화되고 관념화하려는 의식의 배제, 보다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접근 등으로 실현된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밀폐된 일시적인 현상이나 유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개념정의와 함께 현실의 다원화 현상으로 나타난다.

탈구성된 형태안에서 절대적인 구조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양한 시도를 통한 재구성은 여러개의 중심을 만들어 낸다. 서로 중첩되는 중심은 시간과 공간의 관계를 넘어서 새로운 형태로 불연속, 부조화를 연출하는데 이것은 각각의 축에 있던 요소가 새로운 대응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된다.

3. 현대패션에 나타난 탈구성현상

탈구성 디자인에서는 전통적인 미의식과는 다른 잠재되어 있는 이중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탈구성 디자인은 실제로 여러 예술 분야에서 다원적이며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현대패션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현대패션에 나타난 탈구성 현상을 고찰하기 위해 조형요소와 디자이너 별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3-1 조형요소의 실증적 분석

1)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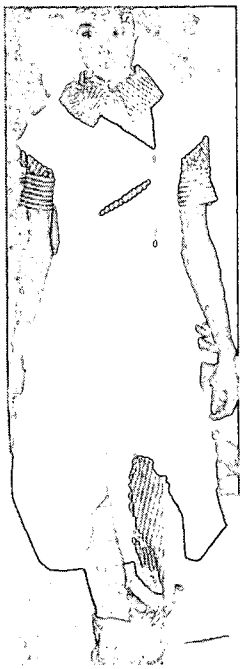
형태는 의복의 가장 기본적인 조형요소로 형태의 내적이며 유기적인 변화, 형태의 방향, 개별적 형태의 구상성 또는 추상성의 우위(優位) 더 나아가 각 부분의 협화음, 불협화음의 원칙[6] 등에 따라 전체의 인상을 좌우한다. 전통적인 형태는 인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비율에 근거를 둔 것이었지만 현대패션에서는 기능성보다는 정신적이고 심미적인 것이 확대되서 표현된 경우가 많다. 일정한 체계나 질서를 중시하는 것 보다 본질에서 벗어나 변화를 주는 형태의 전이는 순수한 예술창조로서 현대패션의 두드러진 특성이 되고 있다. 또한 형태는 조형예술의 공간적인 예술품으로 내부적인 힘이 가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므로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형에서 보여주는 변화는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기에 좋은 수단이 된다.

이와 같은 형태에 나타나는 탈구성현상은 각각의 개체를 다르게 조합하거나 변형, 확대와 축소, 의도적인 구성 등으로 표현되면서 미의식을 구축해가고 있다. 각각의 개체가 다르게 조합되는 현상은 1990년대 중반부터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기본선이 떨어져 나가면서 열린 공간을 형성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주관적인 가치를 부여하기도 하고(그림 1), 기본 질서를 무시한 조합(그림2)으로 옷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과 분석에서 비롯된 끊임없는 요구들을[7] 수용하기도 한다.

이들은 본래의 의미보다는 서로 융합되면서 다원적으로 변형된 개념에 비중을 두며 소외된 타자(他者)를 내부로 끌어들이고 있다. 동일한 형태는 항상 같은 결과를 보여주지만 모든 형태는 대단히 민감해 그 일부분을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조금만 옮겨 놓아도 그것에 본질적인 변화를 준다.[8] 그러므로 각각의 축에서 떨어져 나와 새로이 구축된 형태는 본질적인 질서 뿐만 아니라 비대칭, 불균형, 부조화 등 외적인 미의식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3) 김형효: 앞의 책, 17.
4) 김형효: 앞의 책, 20.
5) 이지윤: 앞의 글, 59.
6) 권영필: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열화당, 77, (1998)
7) 김민수: 모던디자인의 비평, 안그라픽스 177. (1993)
8) 권영필: 앞의 책, 76.

<그림1> Comme des Garçons
95 S/S, Fashion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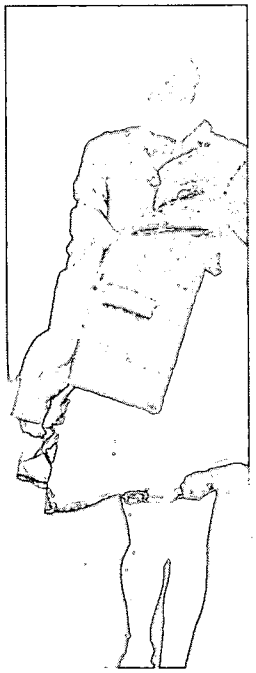


<그림2> 20471120, 95 S/S
Fashion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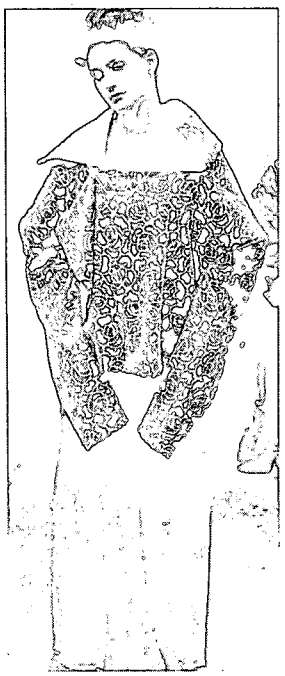
옷의 형태를 인위적으로 변형시켜서 왜곡시키는 방법도 탈구성의 표현으로 사용된다(그림3). 이것은 형식과 내면의 불일치를 야기시키는 의도적인 방법으로 다소 과장되게 나타난다. 이러한 형태에서는 절대적인 의복질서가 인정되지 않으며 경직된 구조로부터 탈피하려는 내면의 의식이 나타나면서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 내적인 의식의 흐름은 전통적인 사고 방식에 회의를 느끼며 점차 현존과 부재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부재를 끌어들일 공간을 넓혀나가며 탈구성을 통하여 다양한 조합을 인위적으로 시도하고 변형시켜 나간다.

이러한 인위적인 시도는 확대와 축소라는 과장된 형태로도 나타난다. 이 형태는 현대패션에서 많이 사용되는 탈구성형으로 인체와의 조화보다는 비어있거나 부족한 공간을 통해 과장된 조형미를 표현하는 것이다. 공간은 의복과 신체사이의 자연스러운 여백으로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갖는다. 남는 공간에서 부유하는 듯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으며(그림4) 부족한 공간은 응집과 응축의 미를 내포한다(그림5). 의복의 조합코드가 서로 연결되고 남는 공간에 흩어진 중심들은 그것을 축으로 하는 다른 형태들을 이루게 되는데 그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탈구성과정을 통하여 서로 융합된다. 그 과정에서 구성의 중심성 통합을 위해 구조적 요소들을 중첩, 왜곡시키고 공간의 성격을 중립화, 흔적화 시킨다.

또한 디자이너의 의도대로 구성하면서 시각적인 효과를 얻는 형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고정관념에 대한 반발로 기본질서를 인정하지 않으며 새로운 개념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무한한 가능성을 가져다 준다. 몰형식의 구성으로 입는 사람의 내적 공간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꼼므 데 갸르송(Comme des Garçons)의 작품(그림6)은 중심이 이탈되면서 탈구성된 것으로 은폐된 공간을 형성하고 이중적인 코드의 해석을 요하고 있다. 이것은 현실 속에 존재할 수 없는 모순된 양면성을 기발한 아이디어로 표현한 것[9]으로 획일적인 의미의 강요나 무미건조한 형태 논리에 반발하는 방법이다.



<그림3>Masaki Matsushima
95 S/S, Fashion News



<그림4> Commes des Garçons
96-97 A/W, Fashion News

<그림5> Commes des Garçons
96 S/S, Collections

<그림6> Commes des Garçons
94 S/S, Fashion Line

9) 정삼오: 현대패션모드, 교문사, 107. (1996)

2) 소재

현대패션의 탈구성현상은 형태 뿐만 아니라 소재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소재는 고정관념을 없애고 열린 사고를 지향하는 탈구성의 표현 수단으로 사용하기에 적당한 조형요소로 그 직접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

소재에 나타나는 탈구성현상은 생각하지 못했던 의외의 아이디어를 텍스타일 프린트로 사용하여 고정불변의 패턴에서 벗어나 자극적이면서도 신선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작품을 보면 내면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듯한 프린트로 인하여 내부적인 힘이 가시적으로 형성된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그림 7).

우리의 내부와 외부세계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개념들은 상대적으로 체계를 유지해 나가게 된다. 이에 따른 복식미도 가치의 절대성으로부터 탈피하며 기존의 관습이나 규칙에서 벗어나 주관적인 기준에서 평가하게 된다. 텍스타일 프린트는 미술가가 화폭에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듯이 디자이너의 미의식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 알렉산더 맥퀸의 프린트는 기본 구성에서 벗어나 재조합되면서 자신의 미적 세계를 드러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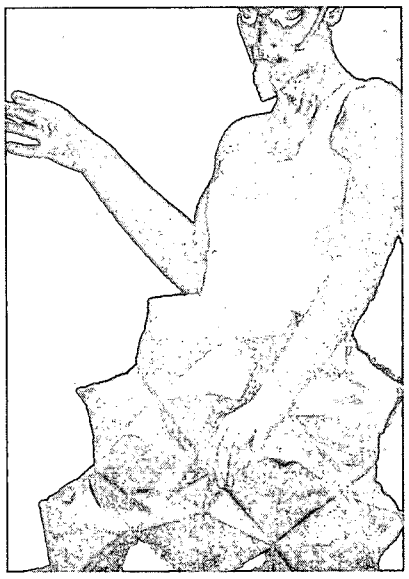
<그림7> Alexander Mcqueen
96 S/S, Collections

텍스타일 프린트 뿐만 아니라 소재 자체를 변형하거나 다른 재료와 결합한 종래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도 많이 보이고 있다. 요시키 히시누마(Yoshiki Hishinuma)의 1996 S/S 작품은 폴리에스터 원단에 열로 사각의 요철을 만들어 강한 부조의 이미지를 부각한다(그림8).[10] 단순한 브라우스에 만들어진 사각의 효과는 전통적인 소재의 개념에서 탈피해 의도한대로 다시 구성한 것으로 디자인의 새로운 해석을 필요로 한다.

10) Sarah E. Braddock and Marie o'Mahany: Techno Textiles, Thames and Hudson, 122. (1999)

<그림8> Yoshiki Hishinuma,
96 S/S, Techno Textiles

Red or Dead의 작품(그림9)에서도 이전에 구축해 왔던 이미지에서 탈피한 새로운 소재 감각을 느낄 수 있다. 작품전체에서 느껴지는 저항적인 분위기가 뾰족한 끝과 숨은 공간을 가진 변형된 소재를 통해서 강조되고 있으며 긴장과 압축의 구성적 리듬을 보여준다. 실제로 Red or Dead의 창업자인 웨인 해밍웨이(Wayne Hemingway)는 '평범한 사람이나 현실에서 찾을 수 있는 불확정적인 가치를 분석, 분해과정을 통하여 그 개념을 실체화시키는데 보람을 느낀다'[11]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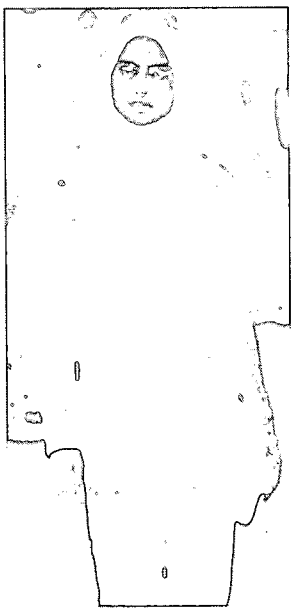
<그림9> Red or Dead, 96 S/S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11) Tamsin Kingswell. Red or Dead: Thames and Hudson, 34. (1998)

3) 색상

80년대 이후 일본의 선미학에 근거한 푸어룩(poor look)이나 그런지룩(grunge look)이 유행하면서 검정색이 상징적인 색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검정은 신비감, 권위 뿐만아니라 불확실성, 불안을 그대로 인정하며 기존의 개념으로부터 소외된 타자(他者)를 포용하는 색상으로 인식되어졌다. 기존의 질서를 무시한 불확정적인 개념의 검정은 개체를 해체시키는 추상적인 색상으로 긴장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현대패션에 사용되는 검정은 현대패션의 탈구성적 특성을 나타내기에 적합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탈'의 의미는 여러 방식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나가 어떠한 근거도, 근원도, 목적도 없는 것으로 일정한 색상조합에서 벗어나 모든 색상이 다 합쳐진 것이다. 이때에 검정이 갖는 의미는 색상이라는 각각의 텍스트가 개념적으로 분해된 다원적인 것이다. 실제로 앤 드뮬리미스터(Ann Demeulemeester)의 작품(그림10)에서 보면 획일적인 의미의 강요나 무미건조한 논리에서 벗어나 원색의 빨강과 함께 사용된 검정에서 새로운 감각을 느낄 수 있다. 검정에 집중되어진 인식은 어떠한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며 또 아무 의미로도 해석할 수 없는 양면을 지닌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인의 정신이 잘 표현되는 색상 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전통적인 복식미로 볼 때 서로 어울리지 않는 여러 가지 원색을 함께 조합함으로써 모든 의미나 원리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도 사용된다. 이것은 디자이너의 의도에 따라 다의적으로 조직되어 읽혀지는 텍스트로 무한히 개방된 감각이 잘 나타나고 있다. 원색은 부드러운 일치를 분열시키고 이 분열된 틈속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새로운 구성을 찾아낸다. 이것은 세속적인 번창에 대항하여 일어나는 반항[12]과도 같으며 기본 중심에서 멀어지면서 각기 새로운 중심을 찾는 의식의 세계가 표현되는 것이라고 본다.



<그림10> Ann Demeulemeester,
96-97 A/W, Mode et Mode

12) Kenneth Baker, 김수기역: 미니멀리즘, 열화당, 11. (1995)

비비안 웨스트우드(그림11)나 이세이 미야케(그림12)의 작품을 보면 원색의 조화를 통해 가장 솔직한 인간미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 미의 가치에 대해서는 단순한 해답을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이란 X, Y 또는 Z이다'라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그것은 탈구성의 특성으로 자연스럽게 받아 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림11>Vivien Westwood
96 S/S, collections

<그림12> Issey Miyake, 96 S/S,
collections

3-2 디자이너의 작품 분석

현대패션에 나타나는 탈구성현상은 여러 디자이너의 작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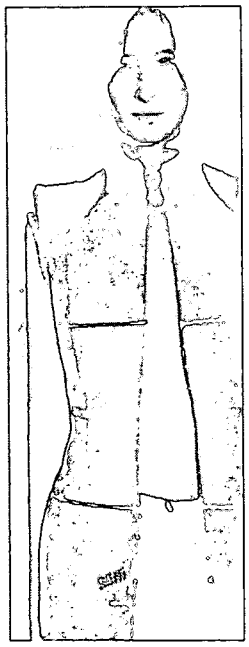
마틴 마지엘라(Martin Margiella)나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앤 드뮬리미스터(Ann Demeuleme-ester) 등의 작품은 기존 복식의 개념에 반발하는 강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장 폴 골티에(Jean Paul Gaultier), 레이 카와쿠보(Rey Kawakubo),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 Westwo-od),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등도 각각의 구성요소를 분해하여 재조합하면서 내면세계를 표현한다.

탈구성의 특성이 강한 마틴 마지엘라, 앤 드뮬리미스터, 레이 카와쿠보의 작품을 분석하고 그 복식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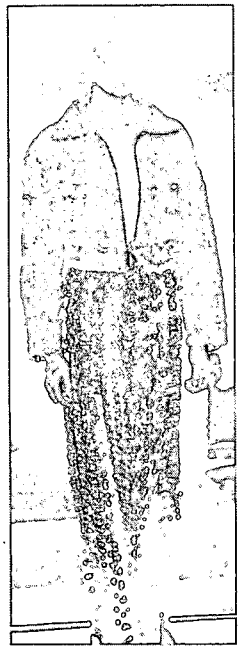
1) 마틴 마지엘라

1979년 장 폴 골티에의 보조 디자이너로 패션계에 입문한 마지엘라는 1988년 파리에 자신의 부티크를 열면서 개성이 강한 다자이너로 각광 받기 사작하였다. 그는 항상 무엇인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냈으며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곤 했다. 그 자신이 '나는 무엇인가 새롭게 재충전되는 아이디어를 좋아한다. 버려지거나 다 닳아 빠진 것에서 신선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것들은 긍정적이다. 옷을

입으면서 느끼는 자유로움은 감정적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13]라고 이야기하듯이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부재의 개념을 찾아내는 작품들을 많이 발표하였다. 쟈켓의 소매를 떼어내고 어깨 패드는 겉에서 달아주며 작은 스냅으로 여밈을 한 디자인(그림13)은 패션을 통해 해체되고 탈구성된 시대정신을 표현한다. 기존의 복식미가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형식적인 규범을 중시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작품은 절대적인 중심, 진리 그리고 근원적인 존재를 거부하고 상대적이며 유동적이고 다원적인 사고로 인식의 공간을 넓혀가는 것이다. 이렇게 넓혀진 공간은 무질서, 전위, 파괴, 역설, 왜곡 등의 형태로 구체화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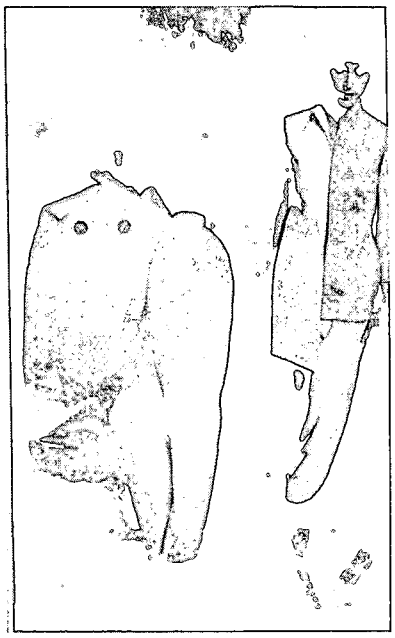
<그림13> Martin Margiella,
95 S/S, Fashion 2000



<그림14> Martin Margiella,
96 S/S, Collections

마지엘라는 모델의 얼굴을 가리면서 본질을 감추고 구체적인 대상을 추상적인 대상으로 옮겨 나간다(그림14). 이러한 시도는 보는 즐거움에서 생각하는 자유로움으로 패션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이다. 또한 소매가 떨어져 나간 쟈켓 한쪽 위에 제도지로 만든 튜닉을 덧입은 작품은 완성되지 않은 듯한 분위기를 연출한다(그림15). 이것은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수정의 과정을 통해 과거의 형태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과 해석을 시도한다. 어느 것도 완전한 것은 없으며 그 불확정적인 의미로 인해 오히려 시선을 집중시키고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작품이라고 본다.

13) Stephen Gan: Visionaires Fashion 2000, Laurence King Publishing, .87. (1999)



<그림15> Martin Margiella,
96 S/S, Fashion 2000

2) 앤 드뮬리미스터

90년대 초를 전후해서 데뷔한 디자이너들 중에는 파괴주의적인 경향을 보이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하나같이 테일러드를 주요 아이템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드뮬리미스터도 그 중의 한 사람이다. 그들이 테일러드를 내세우는 것은 예찬이 목적이 아니라 권위에 대한 도전과 조롱이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14] 드뮬리미스터는 전통을 파괴하면서 진지하지만 딱딱하지 않고 강하면서도 감각적인 작품을 발표한다. 쟈켓이 주는 전통적인 복식미는 사고의 틀마저 편협하게 하는데 이것에 대한 반발로 모든 구성을 흐트러뜨리면서 긴장을 해소시킨다(그림16). 이러한 디자인은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풀어나가는 드뮬리미스터의 뛰어난 디자인 감각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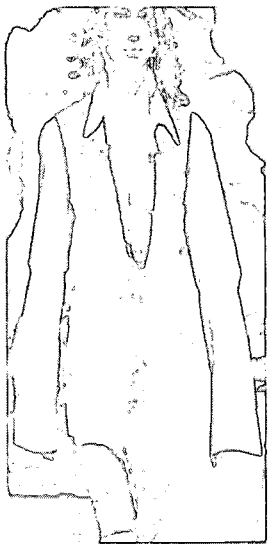
<그림16>
Ann Demeulemeester,
Fashion Designer 199, p.35

14) 가재창: Fashion Designers 199, 정은, 34.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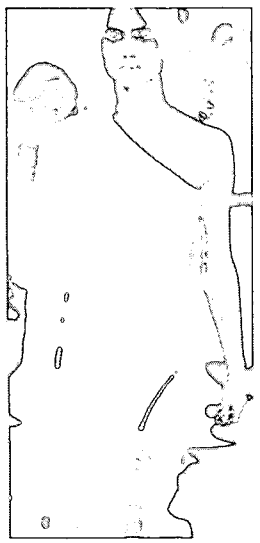
드뮬리미스터는 각각의 작품마다 제시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평범한 것의 구성을 달리하면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녀의 이런 감각은 청소년 시절부터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음악가 패티 스미스(Patti Smith)로부터 받아들여진 것이다. '패티 스미스의 음악에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으며 이 힘은 그녀로부터 나에게 전달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드뮬리미스터는 이러한 감정을 작품에 그대로 쏟아 넣었다.[15]

또한 외견상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상호 대립적인 요소들을 같이 사용하면서 탈구성을 시도한다. 지나치게 긴 소매와 짧은 바지, 칼라만 달린 셔츠는 균형있는 구성에서 벗어나 각 요소의 위치를 바꾼 것으로 여기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의식은 열린감각을 추구하게 된다(그림17).

뿐만 아니라 한쪽 어깨를 드러내는 디자인에서도 균형과 비례를 무시한 탈구성적인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그림18). 한쪽의 소매를 길게 늘어뜨리거나 네크라인을 넓게 파서 한쪽으로 노출시키거나 아예 소매를 달지 않은 디자인은 다른 것들과 차별되는 동시에 그 이중적 개념에 의해 의미가 무한히 확장되어 진다.



<그림17>
Ann Demeulemeester
Fashion Designer199, p.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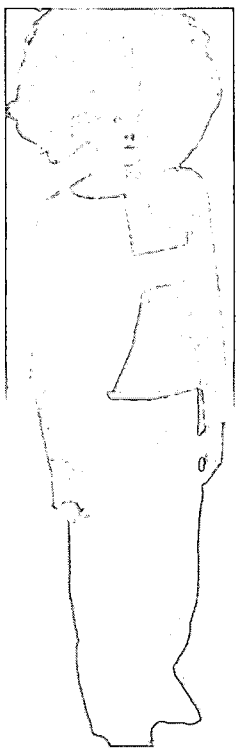
<그림18>
Ann Demeulemeester,
Mode et Mode

3) 레이 카와쿠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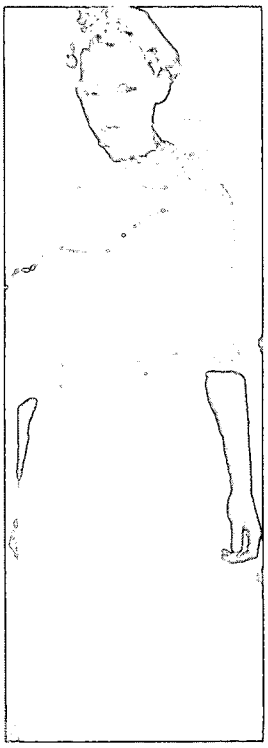
레이 카와쿠보는 일정한 격식이 없는 탈구성적인 표현으로 다소 충격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그녀가 의도하는 디자인은 기존의 인습과 전통을 무시한 스타일로 하나하나의 구성을 흐트러뜨리고 단순화시킨다. 아름답다거나 의미있는 것이 반드시 대중적이고 관습적인 생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통적인 것을 파괴함으로 아름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카와쿠보는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 그리고 조화와 부조화가 함께 어울어진 작품으로 자신의 감정과 열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패션을 기교가 아닌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켜 나가면서 옷의 가치를 변화시킨다.

몸에 맞는 스타일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여러 가지 색상을 조합한 옷과 과장해서 크게 부풀린 머리형태는 서로 부조화를 이루면서도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그림19). 과장된 머리 형태는 모든 복잡한 사고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텍스트들이 응집된 것으로 균형과 비례가 깨지면서 고정된 미의식을 벗어나 부조화속의 조화를 발견하게 된다.

또한 그녀가 즐겨 사용하는 빈곤 미학의 디자인은 현대의 물질문명에 대한 거부로 옷을 통해서 숨은 메시지를 전달한다. 획일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디자이너의 의도대로 표현하는 작품에서 더 강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다. 카와쿠보는 검정색을 주로 사용하면서 일정한 형을 벗어나게 묶거나(그림20) 올을 풀고 구멍을 뚫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빈곤의 빈티지룩을 표현한다.



<그림19>Commes des Garçons,
96 S/S, Fashion Leader



<그림20> Commes des Garçons
4-95 A/W, Mode et Mode

4. 탈구성 디자인의 미적특성

본 장에서는 현대 패션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탈구성현상을 미적인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그 미의식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보다 더 독창적인 디자인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4-1 변형과 왜곡

탈구성 디자인은 고정된 의복의 개념을 변형시키면서 창조되는데 그 결과 과장이나 확대, 축소 등으로 왜곡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주관적인 미의식을 근거로 전통적인

15) Stephen Gan: 앞의 책, 88.

조화, 비례, 균형을 파괴한다. 주관적이란 개인의 자아나 가치관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강하게 부각되는 개인은 독창적인 일차적 발화로 자아의 체계를 주장하면서 그 발화를 지배적인 전통과 규칙 속에 부각시킨다.[16]

지나치게 확대된 의상은 인체와의 사이에 생기는 공간을 통해서 긴장을 유발하며 그곳으로 중심축을 이동시킨다. 또한 어깨나 히프, 소매 등을 과장하면서 기본 구성에서 변형시킨 디자인에서 왜곡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왜곡은 기존의 것에 반해서 새롭게 창출되고 표현되는 또 다른 의미를 말하며 계속 변형되어 나간다.

과장해서 축소시킨 디자인도 변형을 통한 왜곡의 미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축소시키는 것으로 내·외부의 연결을 차단하고 불확정적이며 탈구성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이러한 형태는 중첩, 생략, 교차, 조합, 축소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추상적인 조형미를 표현한다.

이와 같이 전형적인 기존의 개념에서 벗어나 확대되거나 축소된 의상은 탈구성을 통한 인식의 재구조화[17]를 표현하는 것으로 재구조를 위해서 변형, 왜곡된 디자인은 새로운 미적 특성을 갖게 된다.

4-2 부조화의 조화

고정불변한 현존적인 의미가 없는 각 개체들의 병행사용으로 전체적인 개념을 탈구성시키면서 새로운 형태의 부조화를 연출하게 된다. 이것은 각각의 축에 있던 요소가 새로운 대응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무한히 확장되어질 수 있다. 우리의 감성은 다원주의에 의해 변형되고 그 결과 다가치성(多價値性)을 갖게 된다.[18] 그러므로 미에 대한 가치관이 다양해지면서 서로 부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이 많이 보여지게 된다. 전통적인 디자인에서 우위의 개념이던 실제, 구상, 존재, 본질적인 것들이 그 질서가 해체되고 탈구성되면서 허구, 추상, 부재, 변형과 같은 의미와 섞이게 되는데 그러면서 형성된 디자인은 각각의 조형요소에서 부조화의 조화를 이루게 된다. 부조화는 전체에 생동감과 활기를 불어 넣으며 어느 것에도 중심적 의미을 부여하지 않음으로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동시에 어떤 의미로도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그 자체로 추미(醜美)를 포함한 새로운 미를 표출하면서 형태를 다양화하고 표현의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 추미는 순수미의 반대 개념으로 부조화로 인해 생겨나는 인위적인 아름다움이다. 추미는 형태면에서 볼 때 비(非), 반(反), 불(不)과 같은 '탈'의 현상에서 형성된 비대칭, 불균형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이는 주관적인 해석을 필요로 한다. 각각의 구성요소들은 내·외부로부터의 탈구성과정을 통하여 부조화를 이루지만 전체적으로 새로운 조화의 미를 내포한다. 또한 소재나 색상에 있어서 서로 어울리지 않는 요소들이 부조화를 이루며 시각적인 지루함에서 벗어나 신선한 아름다움을 준다.

조화적인 힘이 강해지면 부조화가 되고 부조화는 조화로 개선되는데 조화가 풍부해지기 위해서는 종속적 대칭과 규칙성이 배제되어야 한다. 부조화는 흥미를 일으켜서 인식되고 그래서 완전한 모순은 흥미롭다.[19] 비대칭, 불균형, 불일치의 탈구성 디자인은 이와 같은 부조화의 개념을 통하여 재창조되면서 부조화의 조화라는 새로운 미의식을 갖게 한다.

4-3 양면가치의 공존

현대패션은 과거와 현재, 부(富)와 빈(貧), 합리성과 비합리성, 구상과 추상, 전통성과 현대성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측면에서 그 양면가치를 인정하면서 다양하게 전개된다. 이것은 서로 다른 요소 즉, 각각의 텍스트를 조합하는 상호텍스트성으로 탈구성 특징의 하나로 부각된다. 텍스트는 서로 교차해서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조직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텍스트는 독립하여 존재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그 영역을 넓혀 나간다. 즉, 상호텍스트성에 의하여 열린 사고를 지향하고 일원화, 획일화됨을 거부하며 하나의 개체를 해체시킨다. 세기말의 탈구성적 문화현상은 패션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디자인에 있어서 고정관념을 없애고 다양하게 전개된다. 또한 여러 가지가 복합된 다원주의 방식은 아이디어를 풍부하게 하며 디자인의 한계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디자인의 모든 요소는 각각 다른 미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데 20세기 후반 들어 패션 디자이너들은 두가지 상반되는 성분이 주는 서로 다른 함축적 의미가 합쳐져서 내는 효과를 보다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20]

그랜트 맥크라켄(Grant McCracken)은 새롭고 혁신적인 유행이 가장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패션에 사용되는 코드는 구체적인 단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묶여서 서로 다른 의미를 창조하게 된다는 것이다.[21] 이와같이 서로 다른 요소의 양면가치가 공존하면서 새롭게 창조되는 패션은 상호텍스트성으로 인하여 어느 한 텍스트의 개념이 커질수록 해체의 힘이 커지며 그 순간이 정지된 상태가 아닌 항상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다.

5. 요약 및 결론

패션은 그 시대의 문화의 흐름을 근거로 다양하게 전개되며 새로운 미적 가치를 형성해 나간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 이후 현대패션에서도 탈구성현상과 맥락을 같이하는 디자인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탈구성현상은 1966년 쟈크 데리다에 의해 전개된 이론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전통적인 디자인의 역을 취하는 개념이다. 즉, 허구, 추상, 부재, 변형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으로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없애고 새로운 미의식을 추구하게 된다.

16) Linda Hutcheon, 김상구, 윤여복역: 패로디 이론, 문예출판사, 179. (1995)
17) 김민수: 앞의 책, 182.
18) Charles Jencks, 신수현역: 포스트모더니즘, 열화당, 48. (1997)
19) 안선경: 현대 복식에 표현된 추의 개념, 숙명여자대학교, 28. (1994)
20) 채금석: 현대복식 미학, 경춘사, .86. (1995)
21) George B. Sproles, Leslie Davis Burns: Changing Appearances, Fairchild Publications, 220. (1994)

전체보다는 개체를 중심으로 체계나 질서가 바뀌고 미의 개체도 주관적 위치에서 객관적 위치로 전환 되면서 다양한 미의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탈구성현상은 각각의 개체인 텍스트가 서로 교차하고 얽혀지면서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상호텍스트적인 특성과 이렇게 확장되면서 의미가 흩어져 나가는 가운데 서로 용해되고 융합되어 그 의미를 애매모호하게 하는 결정불가능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시도를 통해 중심에서 멀어지는 탈중심성으로 부조화, 불균형, 비대칭 등을 연출한다.

이러한 탈구성현상은 1990년 이후 현대 패션에 많이 나타나는데 형태, 소재, 색상의 조형요소별로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았다. 먼저 형태에서는 획일적인 의미의 강요나 무미건조한 형태 논리에 반발하면서 변형되고 확대, 축소되었다. 이것은 인식의 공간에 묻혀있던 내면세계가 자연스럽게 표출되면서 새로운 개념으로 재구성된 것이다.

소재에서도 전통적인 개념에서 탈피하여 다른 재료와 결합하거나 대립되는 패턴으로 개성 있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연출한다. 또한 색상은 전체 패션의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디자이너의 감각은 물론 문화나 의식의 흐름까지 민감하게 표현한다. 현대패션에 사용되는 검정은 어떠한 근거나 목적이 없는 것으로 일정한 색상조합에서 벗어나 모든 색상이 다 합쳐진 것으로 '탈'의 의미를 내포한다. 반면에 전통적인 복식미로 볼 때 서로 어울리지 않는 여러 가지 색상을 함께 조합함으로써 다의적으로 조직되어 얽혀지는 텍스트로 무한히 개방된 탈구성적 특성을 표현하기도 한다.

디자이너 중에서도 마틴 마지엘라나 앤 드뮬리미스터, 레이 카와쿠보 등의 작품에서 탈구성적 특성을 잘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기존의 인습과 전통을 무시한 스타일로 하나하나의 구성을 흐트러뜨리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이러한 탈구성 현상은 변형과 왜곡, 부조화의 조화 그리고 양면가치가 공존하는 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탈구성의 미적특성은 '아름다움이란 X, Y 또는 Z이다'라는 다양한 미의 해석을 가능하게 하며 주관적인 미의식의 근거를 마련한다. 이렇게 볼 때 탈구성현상의 미의식을 잘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숙성 · 비정숙성, 수정 · 분해, 사실 · 허구, 현존 · 부재, 구조적 · 비구조적, 밀폐 · 노출 등과 같은 복식의 이원론적 인식체계를 잘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이원론적 대립을 종속의 질서가 아닌 보완적이며 대등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되면 현대패션에 나타난 탈구성의 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수 있고 새롭고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권영필,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열화당, 1998.
- 가재창, 「Fashion Designers 199」, 정은, 1995.
- 김민수, 「모던디자인 비평」, 안그라픽스, 1993.
- 김형효, 「데리다의 해체철학」, 민음사, 1996.
- 안선경, "현대 복식에 표현된 추의 개념"(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1994.
- 이지윤, "해체주의 공간의 구성원리 및 디자인 특성과 조형적 접근 방법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94.
- 정삼오, 「현대패션모드」, 교문사, 1996.
- 채금석, 「현대복식 미학」, 경춘사, 1995.
- Charles Jencks, 신수현 역, 「포스트모더니즘」, 열화당, 1997.
- Kenneth Baker, 김수기 역, 「미니멀리즘」, 열화당, 1995.
- Linda Hutcheon, 김상구, 윤여복 역. 「패로디 이론」, 문예출판사, 1995.
- George B. Sproles, Leslie Davis Burns, *Changing Appearances*, Fairchild Publications, 1994.
- Sarah E. Braddock and Maire o'Mahony, *Techno Textiles*, Thames and Hudson, 1999.
- Stephen Gan, *Visionaires Fashion 2000*, Laurence King Publishing, 1999.
- Tamsin Kingswell, *Red or Dead*, Thames and Hudson, 1998.